

조선 후기 가문 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

—〈엄씨효문청행록〉, 〈성현공숙렬기〉,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이현주*

|| 차례 ||

- I. 머리말
- II. 계후원칙의 시대적 변이 양상
 - 1. 양자의 원칙
 - 2. 입양과 파양
- III. 작품 속에 나타난 계후문제와 갈등양상
- IV. 계후갈등의 소설사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그동안 조선 후기 가문소설은 막연하게 18-19세기로 추정할 뿐 개별 작품간의 세부적인 선후관계를 기능하지 않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양상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특징을 밝혀내고 이들 작품의 의식적 선후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16세기까지는 장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동생의 차남이나 삼남을 입양하였고 18세기에는 동생의 장자나 독자를 입양하였으며 17세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혼용되었다. 또한 조선 중기 이전에는 양자를 입양 후 친자가 생기면 파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이후 점차 혈통보다는 정통이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입양 이후 친자가 생기더라도 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따라 소설을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면 셋째 동생의 차자를 양자로 삼았고 파양가능성을 언급한 <엄씨효문청행록>, 동생의 장자를 양자로 삼았으며 파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객원교수

양가능성을 언급한 <성현공숙렬기>, 동생의 장자를 양자로 삼았으며 파악의 가능성이 없는 <완월회맹연>의 순서로 볼 수 있다.

가문소설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면 후대로 갈수록 가부장인 양부의 발언권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부는 <엄씨효문청행록>과 <성현공숙렬기>에서 형인 양부에게 친아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으나 <완월회맹연>에서는 친아들의 돌려달라는 친부의 목소리가 없어진다. <엄씨효문청행록>에는 친모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아들이 양자로 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으나 <성현공숙렬기>과 <완월회맹연>에서는 양자제도에 대한 친모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부와 양모의 입지가 더 커지는 것이다.

또한 후대 작품으로 가면 양모가 세분화된다. 전처인 양모는 선인이며 후처인 양모는 악인으로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 소설 속 등장 인물의 선악이 선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양모가 한 사람이었는데 반해 이보다 후대 작품이라고 추정되는 <성현공숙렬기>과 <완월회맹연>의 경우에서 양모는 전처와 후처 두 명으로 설정되며 후처인 양모와 그의 친자가 합심하여 가문의 정통론적 논리에 반발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엄씨효문청행록>, <성현공숙렬기>,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계후 양상을 양자의 원칙과 입양 후 파악가능성, 그리고 친부모와 양부모의 관계, 친자와 양자의 입장 등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현실을 알아보았으며 이 연구를 통해 이들 작품의 의식적 선후관계를 밝혔다.

주제어 : <엄씨효문청행록>, <성현공숙렬기>, <완월회맹연>, 계후갈등, 파악가능성, 친부와 양부, 친자와 양자, 전처와 후처

1. 머리말

문학사의 시대구분은 개별문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조선 후기 가문소설은 막연하게 18-19세기로 추정할 뿐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시대를 가늠하지 않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¹⁾양상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작

품에 반영된 시대적 특징을 밝혀내고 이들 작품이 가진 의식적 선후관계를 알아보려 한다.²⁾

조선후기 계후갈등은 가문의 존립을 위협하는 큰 문제거리 중 하나였고 이는 곧 소설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계후갈등이 드러난 작품 속에서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부자갈등과 부부갈등, 형제갈등은 사실 그 이면에 계후갈등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작품 속의 계후갈등을 제외하고는 갈등구조의 본질을 말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계후갈등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어떠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문학사적 전통 위에서 형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가문소설의 계후갈등에 주목한 연구는 개별 작품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³⁾ 장시광⁴⁾은 가문소설의 종통과 입후문제를 당시 법규의 테두리

1) “양자(養子)를 양부(養父)나 제삼자(第三者)의 입장에서는 계후자(繼後子), 계후인(繼後人), 계후자(繼後者), 계자(繼子), 위인후자(爲人後者), 계인후자(繼人後者), 계사(繼嗣), 소후자(所後者), 양자(養子), 수양자(收養子), 시양자(侍養子) 라 하고 입양(入養)을 뜻하는 용어에는 계후(繼後), 입후(立後), 위후(位後), 입사(入嗣), 계후봉사(繼後奉祀), 입후봉사(立後奉祀), 입양(入養), 취양(取養), 계종봉사(繼宗奉祀), 정계(定繼) 라고 하였다.”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3, 589면. 본고에서는 계후자(繼後者)와 계후(繼後)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되, 다만 양부(養父)와 친부(親父), 양자(養子)와 친자(親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문맥상 이해를 돕기 위해 양자(養子)와 친자(親子)로 나타내기도 하겠다.

2) 여기서 의식적 선후관계라고 함은 본고의 주장이 정형성이 아니라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말이다. 즉 16, 17, 18세기 이후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해서 그 소설이 그 시기의 작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선후를 반영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또한 소설 속 상황이 계후갈등의 역사현실의 선후관계를 반영하였으나 이는 소설의 정확한 선후관계라기 보다는 소설 향유층 의식의 선후관계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의 선후관계를 한 가지 맥락만을 가지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본고에서는 양부모와 친부모의 입지, 양모의 세분화 양상, 친자의 반발 등 계후갈등과 관련한 다양한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3) 문용식, 『<성현공숙렬기>의 구성기교와 갈등양상』, 국제어문 11집, 국제어문학회, 1990.

박영희, 『18세기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갈등의 의미 -<성현공숙렬기>를 중심

에서 작품 속 상황을 살펴 합법과 불법행위로 나누고 현실세계를 반영한 모습도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당대의 법과 소설의 양상을 비교연구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사적 전개 속에서 계후갈등 양상의 추이를 살펴보려 한다. 계후갈등은 가문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정 후 가문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말한다. 계후를 선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가문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계파나 학풍의 문제이기도 하며 사회역사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가문소설 중 <엄씨효문청행록>과 <성현공숙렬기>, <완월회맹연> 세 작품을 주목하였다.⁵⁾ <엄씨효문>와 <성현공>은 대부분의 장편가문소설과 같이 작자나 창작연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전하는 작품의 필사연대도 밝힐 수 없다. <완월>은 전주 이씨(1694~1743)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 세 작품 중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창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작품이 유통된 시대의 의식적 배경을 알 수 있다. 그

으로-], 한국고전연구 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_____, 『<엄씨효문청행록>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의미』, 어문연구 29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4)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종통·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집, 2009.

5) <엄씨효문청행록(嚴氏孝門淸行錄)>은 <명주보월빙(明紉寶月聘), <윤하정삼문취록(尹河鄭三門聚錄)>에서 <엄씨효문청행록>으로 이어지는 3부작 중 세 번째 작품이다. 한국학중앙연구소 본은 30권 30책이고 고려대 소장본은 16권16책이며 최근 미국 예일대 바이네케 도서관 소장본이 발견(『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되었다. <성현공숙렬기(聖賢公淑烈記)>는 <임씨삼대록(林氏三代錄)>으로 이어지는 2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서울대 규장각본 25권 25책, 이화여대 소장본 20권 20책이 있다.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은 한국학중앙연구소 본은 180권 180책, 서울대 규장각본은 180권 9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 내에 연작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으나 발견된 것은 없어서 연작관계는 밝혀진 것이 없다. 이 작품들에는 계후갈등이 사건전개의 주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하 <엄씨효문><성현공><완월>로 칭한다.

리하여 <완월>을 본고의 연구에 시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 세 작품의 계후방식과 관련하여 향유층의 의식을 알아보려 한다. 이 작업은 이들 작품에 나타난 의식의 선후관계를 유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들 작품 속에 드러나는 계후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⁶⁾ 우선 역사적 사실에 따라 소설을 시간적 순서로 파악할 것이다. 이는 누구를 입양하였는가하는 입양대상, 그리고 친자가 태어날 경우 파악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친부와 양부, 친모와 양모, 양부와 양모, 전처인 양모와 후처인 양모, 양모와 자신의 친자 사이에 입장차와 그들의 갈등을 살펴보고, 이상을 바탕으로 담당층의 의식과 관련된 작품의 지향과 소설사적 관련양상을 알아볼 것이다. 본고의 논의가 나아가 막연하게 18·19세기로 추정하는 가문소설의 세부적인 선후관계를 밝히고, 가문소설이 현실적 고민을 진지하게 탐색한 고민의 산물이었음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계후원칙의 시대적 변이 양상

1. 양자의 원칙

조선초기의 형제간 균분상속은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장자에게 모든 재산과 제사를 물려주는 장자우대상속으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장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문구성원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

6) 계후갈등이 나타나는 장편가문소설로는 이 외에도 <소씨삼대록><유효공선행록><명주보월빙><효의정충예행록>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계후자를 ‘입양’하는 문제에서 가문구성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시대적 변이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세 작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로 논의를 확대해 가고자 한다.

사가 되었다. 특히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여야 하는 경우, 누구를 양자로 들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문의식의 근간이 되는 ‘종가사상(宗家思想)’⁷⁾의 유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형에게 아들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데려오게 되는데, 이 때 동생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을 데려오는가 아니면 동생의 독자나 장자를 데려오는가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동생의 둘째, 셋째 아들을 데려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동생에게 덜 중요한 아들을 형이 선택하는 것으로 동생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장자나 독자를 데려오는 것은 동생의 상황보다는 형이 우선시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대에 따라 뚜렷이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16세기 까지는 형에 친생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생의 장남이나 독자를 입양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동생의 차남이나 삼남을 입양시킨다. 17세 부터는 동생의 장남이나 독자를 입양시키는 경우와 동생의 차 삼남을 입양시키는 경향이 공존하였다. 18세기에는 동생의 장자나 독자를 입양시켰다. 자신의 독자를 형에게 입양시킨 어떤 동생은 다시 다른 근친자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시키는 사례도 있었지만 입양할 수 없어 절가(絶家)된 사례도 존재하였다.’⁸⁾고 한다. 이러한 일은 동생의 절가(絶家)보다 형의 절가(絶家)를 훨씬 크게 본 가문의식이 대두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문의 번성과 유지를 중시하는 가문의식은 그 가문의 중심을 계후자로 하기 때문에 계후자를 누구로 하는 가하는 문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계후의 실제 예에서 보면

7) 종가사상(宗家思想)은 종가 즉 장자를 중시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자에게 아들이 없으면 차자가 대를 잇지 않고 차자의 아들을 양자로 데려와서 장자가 대를 잇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즉 그 이전에 족보에는 딸의 이름도 올렸으나 종가 사상이 대두되면서 딸과 외손의 이름은 족보에서 사라졌고, 제사와 재산을 장자에게만 상속시켜 여러 아들 중에서도 장자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제사가 중시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8)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3, 698면.

17세기부터 싹트기 시작한 가문의식은 18세기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가산이나 제사상속의 시대적 변천과 일치하는데, 조선초기에는 형제균분상속을 취하다가 균분상속과 장남우대상속의 공존 시기인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의 시기를 지나 그 이후는 장남우대상속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⁹⁾

즉 조선 초기의 균분상속은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간에 재산 상 상속을 평등하게 대했으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장남 위주의 상속이 되고 이에 따라 장남이 대를 잇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6세기까지 동생이 자신의 대를 잇는 것을 우선시하고 차남이나 삼남을 형에게 입양 보낸 것에 비해 18세기 이후에는 동생보다는 형이 대를 잇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어 동생이 자신의 절가(絶家)를 감수하고서라도 형이 아들이 없는 경우 동생의 독자나 장자를 입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누구를 입양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시기별 단계가 작품 내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2. 입양과 파양¹⁰⁾

양자를 들인 후 친자가 태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시대적으로 원칙의 변화가 나타났다. 성종실록¹¹⁾에 의하면 성종 7년(1475)에 처음 입후 후에 친자가 태어난 경우에는 파양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성종 연간에 거평군(居平君) 복(復)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9) 최재석, 위의 책, 699면.

10) 본 절에서 인용한 성종실록(成宗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헌종실록(憲宗實錄), 시송류취(詞訟類聚) 등에 실린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문헌적 사회학적 해석은 (김두헌, 『조선가족제도 연구』, 서울대출판부, 1969, 280-285면)을 참고하였다.

11) 成宗實錄 卷 211 成宗 19年 正月己未.

조카 문(汶)을 입후하였는데 3년 후 친자 윤(潤)을 낳았으므로 문의 입후문(立後文)을 거두고 적장안(嫡長案)에 윤을 고쳐 기록하도록 성은을 입은 것이 전한다. 그와 동일한 사안이 종종 때 발생한다. 중종실록¹²⁾에 의하면 중종 19년(1524)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양자는 친자와 같다는 정통론이 대두되었다. 중종 연간에 박지(朴枝)에 의해 일어났는데 양자인 첩자(妾子)가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일단 계후로 된 이상 부자의 의는 이미 정하여 있으므로 이를 폐할 것이 아니라 하고 혹은 첩자라 할지라도 곧 친부의 골육이므로 마땅히 봉사자(奉祀者)일 것이라 하는 등 의론이 분분하여 정설을 얻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아직 이에 관한 법제가 없었던 까닭이다.

또한 명종 20년(1553) 친자가 봉사하고 입후자를 파악하지 말고 중자(衆子)로 대우하라는 명이 있었다. 명종 연간에 정승 류부(柳溥)의 집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생겼는데 사상(師商 : 류부의 아들)의 친생첩자로 하여금 봉사케 하고 양자 和(사상의 從弟의 아들)는 衆子로 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은 嘉靖癸丑(명종8년, 1553년)의 受敎로서 法文化되었다.¹³⁾ 그런데 선조실록¹⁴⁾에 의하면 27년 후 선조 연간에 이르러 사상의 첩자는 양자 화(和)와 더불어 적모의 재산을 쟁투하여 양자 화를 시양(侍養)이지 계후(繼後)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에 연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때는 화를 수양자로 대우하면 봉사자인 자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산상속분에 있어서는 첩자의 상위에 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선조 14년(1580) 입후자의 기득권을 결정한다. 이렇게 백여 년의 혼란 끝에 결국 가문 속에서 양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 현종(1845-1849)의 기유수교 이후의 정세를 보건데 입양 후 친자를 생한 경우

12) 中宗實錄 卷 50 中宗 19年 正月甲戌.

13) 詞訟類聚 立後條.

14) 宣祖實錄 卷 14 宣祖 13年 九月壬子.

의 처치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사안은 보이지 않는다. 설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법의 위엄으로써 무난히 차단되었다. 현행의 관습에 관하여서도 여러 지방에 있어서는 일단 양자를 한 후는 설사 남자를 출생할지라도 이를 봉사자로 하지 않고 성장한 뒤에 분가시킴을 통례로 함이라고 인정되어 있다.¹⁵⁾

또한 ‘계후자와 친생자간의 문제는 이처럼 친생자가 첩자였기에 연유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입양을 통한 계후자의 편을 들 때 내세우는 논리는 입후를 첩의 자식을 종통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에서 비롯되기도 했다.’¹⁶⁾ 이렇게 입양은 가부장제의 강화와 관련이 있었으며, 개인이나 집안차원에서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대왕조와도 밀접한 경향이 있다. 즉 이는 양자와 친자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통을 중시하는지 혈통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당파간 이념논쟁과 사상논쟁을 가져왔고 또한 왕실의 정통론을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종법제에서는 세조찬탈로 왕위계승에서부터 적계주의 정통론에 입각한 종법제가 무너지니 사대부의 승중 상속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셋째 아들이 승중한다든지 증손자가 승중하는 등 종법제가 무너져가다가¹⁷⁾ 왕위계승에서 예종, 성종을 잇는 과정에서 적계주의 정통론에 입각한 종법제를 준수하려는 의도가 표방되니 사대부가에서도 적장자 승중(승중), 상속에서도 종법제의 준수가 표방된다. 중종반정이후 지금까지 적장자에 아들이 없으면 차자가 승중하였던 혈통론에 입각한 종법제가 적장자에 아들이

15) 물론 이후에도 여러 논쟁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함의는 16세기 후반에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6) 김두헌, 앞의 책, 284면.

17) 이러한 실제 상황은 곧 소설에도 반영되었다. 초창기 가문소설 <소씨삼대록>에는 아버지 소현성의 명에 따라 셋째 아들인 소운성이 계후자가 되는 과정이 있다. 대를 걸러 계후자가 배출되기도 한다.

없으면 입후하여 승증하는 정통론에 입각한 종법제로 발전하면서 종법제가 확립되어 갔다. 이에 따라 서얼 승증이나 총부법(冢婦法) 논의가 일어나고 드디어는 입후 후 친생자가 태어나도 양자가 그대로 승증한다는 정통론에 입각한 종법제가 확립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입후 후에는 친생자가 태어나도 양자가 그대로 승증하는 것이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면서 대동보의 일반화, 동족촌락 형성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¹⁸⁾

이렇게 하여 조선 후기 이후 친생자가 태어나도 양자가 그대로 계후자로 인정받게 되지만 이에 대한 친자를 비롯한 가문구성원들의 반발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가문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는 계후갈등은 곧 가문소설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고 계후갈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제도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은 악인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담아낸 계후의 상황을 살피고 계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부당성을 말하는 악인의 목소리와 부자관계와 모자관계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계후의 의미도 살피고자 한다. 시기, 상황,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계후의 양상을 살펴 작품의 시기별 차이도 알아보겠다.

Ⅲ. 작품 속에 나타난 계후문제와 갈등양상

양자의 원칙과 입양 후 친자가 생겼을 경우 양자의 파양 가능성에 따라 시대를 구분해서 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엄씨효문>의 경우이다.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 엄씨 가문에 삼형제가 있었다. 첫째인 엄백진, 둘째인 엄백현, 셋째인 엄백경이었다. 엄

18) 지두환, 『한국사상사』, 역사문화, 1999, 193·196면.

백진은 부인 최씨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었으므로 엄백경의 둘째 아들인 창을 입양하여 집안의 대를 잇도록 했다. 맏이에게 아들이 없자 셋째 동생의 둘째아들을 양자로 삼았던 것이다.

이제 문창의 신성아를 보니 하늘이 유의하사 오문을 흥케할 천니귀라. 능히 오가 누더봉스를 감당하리니 너 금일노부터 삼태의 신성아로 계후를 정하여 종스를 빚니고즈 하느니 신아의 명을 창이라 하고 즈를 순경이라 하리라. (<엄씨효문> 1-10)¹⁹⁾

그런데 양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친모 장후도 양모 최부인도 달가와하지 않는다. 친부 엄백경도 형수인 양모가 어질지 못함을 생각하여 선뜻 내켜하지는 않으나 집안의 대사(大事)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당휘 불열하나 홀일업고 최부인이 원하느 비 아니나 무어시라 더스의 간에 하리오. (<엄씨효문> 1-10)

타시 인하여 신아를 최부인과 보너니 최씨 니심의 미온하나 것츠로 깃거하더라. 당휘 비상특출한 아즈를 싱하여 날이 오리지 아나 최부인과 아이니 즈모의 마음이 엇지 결연치 아니며 더욱 최씨의 은악양션하를 거울갓치 비최미심시 엇지 편하리오만은 본디 통달하미 강하의 도량이라 불호흔 스식을 니지 아니코 만면 화괴로 아즈를 누련하미 업스니 좌중이 칭찬 경복하더라. (<엄씨효문> 1-11)

왕은 빅슈의 어지지 못하를 불쾌하나 형장의 금일 말슴은 진실노 문호의 더시라. (<엄씨효문> 1-10)

얼마 뒤 최부인이 아들 영을 낳았다. 그러자 친부인 엄백진은 창을 도로

19) 기본자료의 인용은 (책명, 권, 면)의 순서로 한다. 이하 동일.

달라고 한다. 즉 파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복원 형장은 창아의 모용흥을 심각하사 쇼데를 도로 주시면 쇼데와 당시 만나 이국을 즈음하여 축원의 인물 땅작산의 살오는 탄을 업게 하시물 하라난이다. (<엄씨효문> 4-63)

절아(영)의 아름다운 기질을 보오미 죽히 형장 뒤홀 니어 조선향스를 빗나올가 환심호오므로 …… (<엄씨효문> 4-64)

이렇게 친부 엄백진과 친모 장후가 자신의 친이들을 애타게 그리고 있음을 말하고 영의 기질이 뛰어나 종통을 받들기에 모자라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들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양부 엄백현은 시종일관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동생의 요구를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

이제 현데 니런 괴이흔 말을 흥노노 이말을 두 번 니론즉 우형이 당당이 영아를 가중의 업시하여 할단즈이하여 아의 녀녀를 끈코 그러치 아닌즉 우형이 티빅우중의 단발문신하여 형양의 도라가 어진 제질노 종통을 밋드러 선세를 현양하던 고스를 효측하리라. (<엄씨효문> 4-63~64면)

동생이 계속 이런 말을 하면 자신의 친자인 영을 없애서 걱정을 없애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문신하여 종통이 창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한다. 형망제급²⁰⁾을 논하는 것이다. 과격한 형의 말을 들은 창이 친부 엄백진은 두 번 다시 형의 뜻을 그스르지 않겠다고 하며 죄를 청한다.

20) 봉사(奉祀)치 않는 차자(次子) 이하를 지자(支子)라 한다. 장자(長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조사(早死)하면 차자가 승중(承重)하고 적실에 아들이 없고 첩자만 있으면 첩자가 승중한다: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 장자가 조사(早死)하여 차자가 승중자(承重者)가 되는 것을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이라 한다.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일지사, 1977, 310면.

이렇게 <엄씨효문>은 16세기의 방식으로 동생의 차남을 입양했으며 파악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서 세 작품 중 가장 초기 가문소설의 경향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엄씨효문>이 양자제도가 정착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일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창외 친부 엄백진 동오왕에게는 맏아들인 세자가 있는데 그가 불륜하자 오국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 왕위를 계승케 하라고 유언한다. 이에 따라 동오왕의 사위 윤창년이 평오왕으로 등극하여 오국이 평화를 찾게 된다.²¹⁾

둘째, 동생의 장자를 양자로 삼았으며, 입양하면서 파악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성현공>의 경우이다. <성현공>은 명나라 문황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임한주, 둘째는 임한규이다. 임한주는 부인 성씨 사이에 아이가 없자 임한규의 부인 위씨가 낳은 맏아들인 희린을 양자로 삼는다. 그러면서 임한주는 성씨가 아이를 낳으면 희린을 친부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성씨 후일의 나커든 도로 주스이다. (<성현공> 1-76)

그런데 성씨 부인이 죽고 뒤를 이어 여씨 부인을 후처로 맞이하게 되는데 여씨 부인이 아이를 가지자 임한주는 대놓고 싫어하는 기색을 보인다.

너 본디 복이 박호니 계성홀 〇들이 잇거늘 드시 두기를 바라리오 분의 업슨 즈식은 깃부지 아니니 복이 만닐 남녀간 어질면 명이 기지 못호여 단명 지탄을 기칠 거시오 만일 장슈홀진디 크게 불초호여 반성심위 될ᄃ 하노라.
(<성현공> 1-92)

21) 이는 제일 후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완월>의 경우와 대비된다. <완월>에서는 장자의 권리가 철저히 지켜지는데 정씨 가문 뿐 아니라 장씨가문이나 오랑개에 있어서까지 장자는 어질고 장자의 자리를 노리는 자는 패륜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줄고, 「<완월회맹연>의 역사수용 특징과 그 의미 -토목지변과 탈문지변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 109집, 2010, 214-215면.

자신의 아들을 가진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자 집안 식구들이 나무라지만 그는 태어난 아들을 보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조금도 사랑하는 기색이 없다. 전처 성씨는 양자를 기쁘게 맞이한 것에 비해 후처 여씨는 속으로 구밀복검(口蜜腹劍)하여 일단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나 자신의 아들이 계후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여씨가 아들을 낳자 친부 임한규는 형이 아들이 생겼으니 희린을 데려오겠다고 한다.

처사 공수하여 노족이 고하되 희이 즈식을 앗기미 아니라 조고로 종소는 크게 중하니 형장이 님의 은들을 두어 겨시거늘 희린을 거두어 다려오지 아니면 더도의 크게 그른지라. 조위 명정을 처결하시를 보르느이다. (<성현공> 1-98)

이는 처음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또한 임한주와 임한규의 어머니 관태부인도 임한규의 말에 동의한다. 여씨 부인이 아이를 낳았으니 희린을 도로 임한규에게 돌아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당년의 오이 희린을 양조하문 성현비 질약드병흔지라 싱산이 어려울가 하 여 이 거조를 하미러니 님의 녀현비 계통하여 녀조를 싱하·여시니 희린을 도로 한규의게로 도라보너미 아니 가하랴. (<성현공> 1-98·100)

그러나 임한주는 양자 희린을 돌려주지 않는다. 동생이나 어머니가 재차 돌려주라고 하자 형망제급을 논하며 반대의견을 물리친다. 친자가 태어나자 동생이 아이를 달라고 하며 어머니도 동생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형이 자신의 계후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극단적인 말을 하며 동생과 어머니를 설득하게 된다. 임한주는 동생 임한규가 자신을 대신하여 계통을 잇고 종사를 받들게 하겠다는 내용의 축문을 쓰고 이를 본 임한규는 이후로 형인 임한주가 열 명의 자식을 낳아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을 한다. 이렇게 하여 <성현공>은 동생의 장자를 입양했으며 파양의 가능성을 양부가 언급함으로써 <엄씨효문>보다는 후대의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현공>은 영락제의 제위찬탈사건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소설 서두에 나온다. 조카를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제위찬탈 사건에 대해서만은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연왕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임한주는 연왕을 섬기게 된다. 장편가문소설의 역사적 배경이 소설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장자입후원칙이 때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²⁾

셋째, <완월>에서는 동생의 장자를 양자로 삼았으며 파양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다. 명(明)나라 영종(英宗) 연간에 정잠과 정삼 형제가 있었다. 정잠은 부인 양씨 사이에 아들이 없자 동생 정삼의 큰아들 인성을 양자로 삼는다. 양씨는

화데에 즈식이 곳 첩에 즈식이오니 계후호오미 귀출에 다르리잇고. (<완월> 1-42)

라고 하여 정삼과 화부인 사이에 난 아이를 자신의 아이마냥 사랑한다. 그런데 양부인이 죽고 이어 정잠이 맞이한 소부인은 처음에는 겉으로나마 받아들이지만 곧 자신의 아들 인종을 낳으면서 반발한다. 양자의 존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허수아비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하는 것이다.

22) <완월>에서는 주인공 서씨 집안이 맏이인 영종을 섬긴다. 영종의 왕위를 찬탈한 동생 경태는 음탕무도하게 그려져 있고 경태를 섬기는 이들도 모두 악인형상을 하는 것으로 보아 <완월>의 지향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맏이 편에서 서서 장자입후원칙을 지키며 서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줄고, 앞의 논문, 210-211면.

한편 양자를 달라는 말에 친부 정삼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양부 정삼은 형망제급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하여 친부를 놀라게 하고 무난히 양자로 삼는다.

타일 누디 봉스를 너의게 도라 보너리니 현대는 왕계에 어딜몰 헤아려 스 양치 말디어다. 불효 솜천에 무휘위디라. 우형이 즈식을 두지 못흐미 조선에 죄인이라. 유죄지 즈리를 피하고 유덕즈로 후스를 니으미 올치 아니흐라.
(〈완월〉 1-45)

이 과정에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도로 주겠다거나 다시 달라거나 하는 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돌려주는 가능성은 아예 없어 보인다.

<엄씨효문>, <성현공>과 <완월>의 경우에서 모두 형망제급이 언급되지만 이들의 성격은 다르다. 형망제급이란 형이 아닌 동생이 계후를 잇는다는 것인데, 형이 이를 입에 올리자 동생은 듣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형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계기가 된다. <엄씨효문>과 <성현공>에서는 파악하게 될 수 있는 과정에서 형이 파악을 거부하는 태도를 밝히기 위해 말한 것이고 <완월>에서는 입양하는 과정에서 형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형이 말한 것이다. 즉 <완월>에서는 파악이 언급되지도 않고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입양과 관련해서 <완월>의 향유층은 더 후대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따라 소설을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면 셋째 동생의 차자를 양자로 삼았고 파악가능성을 언급한 <엄씨효문청행록>, 동생의 장자를 양자로 삼았으며 파악가능성을 언급한 <성현공숙렬기>, 동생의 장자를 양자로 삼았으며 파악의 가능성이 없는 <완월회맹연>의 순서로 볼 수 있다.

IV. 계후갈등의 소설사적 의미

가문소설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면 후대로 갈수록 가부장인 양부의 발언권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부는 <엄씨효문>과 <성현공>에서 형인 양부에게 친아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으나 <완월>에서는 친아들을 돌려달라는 친부의 목소리가 없어진다. 그 이유는 가부장의 권력이 세어지면서 혈통보다는 종법위주의 가족관계가 정립되기 때문이다. <엄씨효문>에는 친모인 장후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아들이 양자로 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으나, <성현공>과 <완월>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보내는 것에 대한 친모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친부보다는 양부가 더 권력이 커지고 친모보다는 양모의 입장이 더 드러나는 등 양부와 양모의 입지가 더 커지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후대 작품으로 가면 양모가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전처 양모는 선인인 반면 후처인 양모는 악인으로서 입지가 강하고 서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 전대 작품인 <엄씨효문>은 전처와 후처로 나뉘지 않고 양모는 한 명이다. 양모 최부인은 자신의 아들 영과 의견이 같지 않아 목적의식을 가져도 사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긴다.²³⁾ 후대로 오면서 양모는 전처와 후처로 나누어 극명히 다르게 그려진

23) <엄씨효문>에서 자신의 친자와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최씨의 입장은 <소씨삼대록>의 방씨와 비슷한 점이 있다. 친자인 영은 형인 창을 따르고 가문의 논리를 지키려 하며 어머니 최씨만 아들 영이 계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17세기로 추정하는 초기 가문소설인 <소씨삼대록>의 방씨는 아들이 죽고 자신도 자살한데 비해 18·19세기 정립기 가문소설인 <엄씨효문>의 최씨는 개과하여 용서받는다는 점이다. 엄씨가 가문 내에 받아들여진다는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가문구성원을 감싸는 정립기 가문소설의 특징이기도 하며 <성현공>의 여씨나 <완월>의 소씨가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개과 후 결국 가문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후처는 악인으로 형상화되었는데 이는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무리를 악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인물의 선악이 선명해진다고 할 수 있으며 후처는 아들과 뜻을 함께 하기에 더욱 힘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엄씨효문>에서는 양모가 한 사람이었는데 반해 <성현공>과 <완월>의 경우에서 양모는 전처와 후처 두 명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이들 후처를 악인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며 선인과 대비되는 악인을 그려내기 위한 통속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전처는 철저하게 가문의 논리를 따른다. 양자를 완전 자신의 친자인양 여기며 가문의 논리와 완전히 일치한다. 물론 자신의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양자에게 심리적으로 기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처가 일방적으로 가문의 논리를 따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후처는 자식이 없을 때도 겉으로만 태도를 공손히 하기 때문이다. 후처가 들어와서 가문의 질서를 흔들고 가문에 위기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여 후처를 매도하기 위해 전처의 존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경우도 가부장과 양자인 계후자가 대립하는 경우는 없다. 가문의 계후가 되는 것에 어떤 양자도 불만이 없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자신의 권리를 양자에게 빼앗긴 친자가 아버지와 대립하는 모습은 <성현공>과 <완월>의 경우에 나타난다. 친자가 양자인 형을 따르면서 친자를 계후자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하는 어머니와 뜻을 달리하는 경우는 비교적 전대작품인 <엄씨효문>에서, 어머니와 친자가 합심하여 양자를 밀어내고 그 계후자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경우는 후대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성현공>과 <완월>로 나눌 수 있다. <엄씨효문>에서 양모인 최씨는 아들을 낳은 후 자신의 친자를 계후자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친자인 영은 양자를 형으로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고자 애쓸 뿐 계후자리에 관심이 없다. <성현공>에서 후처인 여씨가 아들을 낳은 후 자신의 아들을 계후자로 삼고자 한다. 그 아들도 처음부터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흥계를 꾸민다. <완월>에서 후처인 소씨가 아들을 낳은 후 자

신의 아들을 계후자로 삼고자 한다. 아들인 인증은 자신이 계후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어머니와 행동을 같이 한다. <성현공>과 <완월> 이들 소설의 배경은 정통론이 대세여서 양자인 계후자의 권리가 너무나 클 때이다. 장자는 가장권을 가지게 되고 장자와 차자 간 재산권의 격차가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때문에 계후자의 자리를 놓친 친자는 자신의 권리가 없음이 억울해질 것이고 따라서 계후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정통론이 우세해진 사회적 상황상 과양이 불가능하므로 악인형상으로만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엄씨효문>은 아직 계후자의 친부와 친모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양모가 한 명으로 나타나고 계후자와 뜻을 같이 하는 동생의 모습에서 아직 정통론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성현공>은 친아들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는 친부의 목소리는 있으나 친모의 태도는 보여주지 않는다. 양모는 전처와 후처로 나타나며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억울한 친자가 있어 양모와 결합하여 가문의 논리에 맞선다. <완월>은 친아들을 돌려달라는 친부의 목소리가 전혀 없으며 친모의 태도도 서술되지 않는다. 양모는 전처와 후처로 나타나며 억울한 친자가 양모와 결합하여 가문의 논리에 맞선다. 이렇게 문학사적으로 보면 이들 작품 간에 그 선후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고전소설은 그 작자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작품이 많다. 조선후기 장편 가문소설도 그동안 18-19세기로 추정할 뿐 개별 작품간의 선후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

양상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특징을 밝혀내고 이들 작품에 녹아든 향유층의 의식적 선후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조선후기 계후갈등은 가문의 존립을 위협하는 큰 문젯거리 중 하나였고 이는 곧 소설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가문소설 중 계후갈등이 주된 서사동력인 작품을 주목하였다. 특히 양자를 계후자로 하는 경우인 <엄씨효문청행록>과 <성현공숙렬기>, <완월회맹연> 세 작품을 분석하였다.

계후갈등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이것이 어떠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문학사적 전통 위에서 형성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장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16세기까지는 동생의 차남이나 삼남을 입양하였고 18세기에는 동생의 장자나 독자를 입양하였으며 17세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혼용되었다. 또한 조선 중기 이전에는 양자를 입양 후 친자가 생기면 파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이후 점차 혈통보다는 정통이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입양 이후 친자가 생기더라도 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따라 소설을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면 셋째 동생의 차자를 양자로 삼았고 파양가능성을 언급한 <엄씨효문청행록>, 동생의 장자를 양자로 삼았으며 파양가능성을 언급한 <성현공숙렬기>, 동생의 장자를 양자로 삼았으며 파양의 가능성이 없는 <완월회맹연>의 순서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가문소설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 결과 이 순서가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들은 후대로 갈수록 가부장인 양부의 발언권이 세다. 상대적으로 친부보다는 양부가 더 권력이 커지고 친모보다는 양모의 입장이 더 드러나는 등 양부와 양모의 입지가 더 커지는 것이다.

또한 후대 작품으로 가면 양모가 세분화된다. 후대로 오면서 양모는 전처와 후처로 나누어 입장차가 극명히 다르게 그려진다. 전처인 양모는 선인이며 양자를 완전히 자신의 친자인양 여기는 등 철저하게 가문의 논리를

따른다. 반면, 후처인 양모는 악인으로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 후처는 악인으로 형상화된 것은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무리를 악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소설 속 등장 인물의 선악이 선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양모가 한 사람이었는데 반해 이보다 후대 작품이라고 추정되는 <성현공숙렬기>과 <완월회맹연>의 경우에서 양모는 전처와 후처 두 명으로 설정되며 후처인 양모와 그의 친자가 합심하여 가문의 정통론적 논리에 반발한다. 양자인 계후자의 권리가 너무나 크기에 양자에게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친자가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반발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소설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작품의 지향과 소설사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편 계후갈등을 다루는 가문 소설은 전설자식과 계모갈등을 주된 서사동력으로 하는 가정소설과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악인의 흥계를 꿰뚫어 보기가 가능한 ‘가문’이 존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문소설의 특성상 가문을 신뢰하고 가문의 번영을 바라는 향유층의 바램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문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호텍스트성과 영향관계를 밝히는 것은 다음 연구로 미룬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고대소설대계』 3, 이석래 · 김진세 · 이상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성현공숙렬기』 1~8, 김수봉, 한국학술정보, 2010.

『완월회맹연』 1~12, 김진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1993.

2. 논문

문용식, 「〈성현공숙렬기〉의 구성기교와 갈등양상」, 『국제어문』 11집, 국제어문학회, 1990.

박영희, 「18세기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계후갈등의 의미 -〈성현공숙렬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 「〈엄씨효문청행록〉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의미」, 『어문연구』 29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 박사논문, 1991.

이현주, 「〈완월회맹연〉의 역사수용 특징과 그 의미 -토목지변과 탈문지변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 109집, 2010, 214-215면.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범 -종통·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9.

조광국, 「〈엄씨효문청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부장제」, 『어문연구』 32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허원영, 「한말 한 중가의 입후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사회와 역사』 7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3. 단행본

김두현, 『조선가족제도 연구』, 서울대출판부, 1969, 284면.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일지사, 1977, 310면.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지두환, 『한국사상사』, 역사문화, 1999, 193·196면.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3, 198·199면.

Abstract

Transition of Successor Conflicts in the Family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ed on <Umsihyomuncheonhaenglok><Seonghyeongongsukryeolgi>
<Wanwolhyemaengyeon>-

Lee, Hyun-ju

Until now, we just have assumed the Family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may be works in the 18th or 19th century and can't identify the chronological order among them. This study aims at making clear the tim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Novels and the chronological order among them through researching the phase of successor conflicts in the Family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Successor conflict means the family troubles at the time of selecting family successor and after that time. The troubles are also political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three Novels, <Umsihyomuncheonhaenglok><Seonghyeon-gongsukryeolgi><Wanwolhyemaengyeon>, among the Family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In <Umsihyomuncheonhaenglok>, they adopted the second son of the third youngest brother and thought canceling the adoption. In <Wanwolhyemaengyeon>, they adopted the first son of younger brother and didn't have thought of canceling the adoption. In the Family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 latter the time of the work is, the greater power an adoptive father has. In <Umsihyomuncheonhaenglok><Seonghyeongong-sukryeolgi>, a true father can ask for returning his true son. But in <Wanwolhyemaengyeon>, a true father can't ask for returning his true son. The reason is that the power of the patriarch is growing stronger. Comparatively, the power of an adoptive father becomes stronger than that of true father and the demand of an adoptive mother is more emphasized than

that of a true mother. Even two adoptive mothers are appeared in the latter Novels. Usually, the first wife & adoptive mother has good character and the second wife & adoptive mother has bad character because the second wife opposes the patriarchal system. The only adoptive mother appears in <Umsihyomuncheonhaenglok>, but two adoptive mothers are appears in <Seonghyeongongsukryeolgi>.

This study clarifies the chronological order among the Family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researching the characteristics of successor conflicts. After examining the possible successor, the possibility of canceling adoption, a true father & mother and a adoptive father & mother, the following conclusion is deduced ; <Umsihyomuncheonhaenglok> must be the oldest Family Novel among three of them and <Seonghyeongongsukryeolgi> is the second oldest one. <Wanwolhyemaengyeon> must be the latest one.

Key words : Umsihyomuncheonhaenglok, Seonghyeongongsukryeolgi, Wanwolhyemaengyeon, successor conflict, canceling adoption, conflict between true and adoptive fathers, the first wife & adoptive mother, the second wife & adoptive mother

이현주

영남대학교 국어국문과 객원교수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유림노르웨이숲 105-2001

전화번호 : 010-9992-8584

전자우편 : 90hjlee@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4일 투고되어
2012년 1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11일 게재 확정됨.